

민주당 ‘김동철 의원 발언’ 공식 사과

이강래 원내대표 등 총무원 예방 ...“누 끼쳐 송구”

국회 본회의에서 “동국대 약대 선정은 권력형 비리”라는 억지 주장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동철 민주당 국회의원이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해 공식 사과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철 의원, 강창일 의원(국회 정각회 부회장)은 지난 4월26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하고 당 차원은 물론 개인 차원에서도 공식 사과했다.

이날 이강래 원내대표는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러 왔다”고 말문을 연후 “김동철 의원이 본회의 질의과정에서 조계종에 누를 끼친데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본인이 국회에서 소명 기회를 갖기도 했으니, 양해 해달라”고 정식으로 사과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비운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불교계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종단 일에도 큰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인 김동철 의원은 “저의 불찰로 큰 상심을 끼쳐드려서 다시 한 번 정말 송구스럽다”면서 “저에게도 큰 가르침을 받는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 불교를 더욱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이강래 원내대표와 김동철 의원의 사과 표명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전에 이강래 대표가 종단에 큰 관심을 갖고 종단의 어려운 일을 도와주신 것을 늘 고맙게 생각해왔다”면서 “그런데 김 의원이 지난 번 국회에서 한 말씀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큰 것으로, 우려를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총무원장 스님은 “김 의원이 국회에서 (사과) 발언을 통해 뜻을 충분히 전했고, 종단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지난 4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강래 원내대표, 강창일 김동철 의원 등 민주당 관계자와의 대화에 앞서 사과를 받고 있다.

김형주 기자 coo1jo@ibulgyo.com

고 있다”면서 사과를 수용할 의사를 비쳤다.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부장 영답스님은 “(김동철 의원의 본회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불쾌했다”면서 “(종단) 내부 문제를 자꾸 정치권에서 연결시켜 발언하여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총무부장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이 인내를 갖고 꼭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김동철 의원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국회에서의 첫 발언에 문제를 지적했다.

총무부장 영답스님은 “일부에서는 안(상수)의원에 대해 아무 소리를 안하면서 (김동철 의원에 대해서만) 그러느냐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 “안 의원에 대해선 우리가 압력을 안 받았다”고 밝혔다. 총무부장 스님은 “(종단 입장에서) 여당의 협

조도 받아야 하고, 야당의 협조도 받아야 한다”면서 “(종단은) 어느 한쪽으로 절대 치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늘 개인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고, 민주당 원내대표 자격으로 온 것이니 당 차원에서 (사과를) 고려한 것으로 양해 해달라”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도 “김동철 의원이 국회 본회의의 신상발언과 오늘 직접 방문을 하여 사과를 했다”면서 “(종단과 민주당이) 여유가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20여분간 진행된 민주당의 사과 방문에는 총무부장 영답스님, 기획실장 원답스님, 사회부장 해경스님, 문화부장 효탄스님이 배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포교종책 일관성·통합성 확보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운영령’ 공포

미래 불교의 주역인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전반을 담당할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해총스님)은 지난 4월20일 제23차 총무회의에서 “포교종책의 일관성과 통합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포교원 산하에 어린이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종단 어린이 청소년 포교의 종책 수립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 공포했다.

령에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 종책 수립, 과

제 수립, 지도자 양성 및 포교관련 단체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했으며, 위원회 구성과 자문위원회 관한 규정 등이 담겨있다. 이밖에도 동련, 파라미터를 위원회 산하기구로 편제했다.

한편 어린이·청소년포교 전략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종단기구로 지난해 12월 발족한 어린이청소년위원회는 조계종 포교원과 동련,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등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 대표 및 실무자 26명으로 구성됐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사회부, 우즈벡 자은사 등

‘국제포교 5개 사업’ 지원

조계종 사회부는 국제포교 프로그램 공모에 응모한 국제 신행단체 프로그램 중 5개 사업을 선정해 지난 4월20일 발표했다. 지원단체는 다음과 같다. △미국 조지아 불국사(조지아공대 불교학생회 창립 지원) △미국 미네소타 삼불사(여름캠프 및 한글학교 현지인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강화)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불종행사 법사 초청, 문화행사) △호주 정법사(시드니 연합 불교인의 밤 한국 전통문화 소개) △호주 금강사(어린이 교실 공간 확보, 이민 2·3세 한국어 말하기대회 개최) △우즈벡 자은사(8·15 기념 고려인 천도제 개최)

박부영 기자 chisan@ibulgyo.com

통도사 ‘천안함 성금’ 3000만원 보시

정우스님,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

“종단차원 전달했으면” ...“유족들에게 큰 용기”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사진)이 천안함 희생 장병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성금 3000만원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아름다운동행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정우스님은 지난 4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천안함 성금을 기탁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국내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통도사가 제일 먼저 성의를 표해 주어 감사드린다”면서 “천안함 희생 장병과 유가족들에게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통도사 주지 정우스님은 “천안함 희생장병 유가족들이 큰 아픔을 입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면서 “아이티 지진 피해 당시에도 성금을 전

했는데, 우리 장병들의 안타까운 희생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 없었다”고 성금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정우스님은 “지진이 나고 화산이 터지고 해일이 발생한데 이어 국내에서도 천안함 침몰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장병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데 불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우스님은 성금을 총무원에 기탁한 까닭에 대해 “통도사에서 직접 유



전북봉축위·조계사·용주사 ... 전국 본말사

천안암 희생장병 ‘극락왕생 기원’

전라북도봉축위원회(위원장 원행스님,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는 지난 4월24일 오후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해군 천안함 희생 장병들을 추모하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세계 평화, 민족화합을 염원하는 기원담 점등식’도 겸한 이날 행사에는 원행스님을 비롯해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법만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스님, 김완주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축위원장 원행스님은 “천안함 승조원들의 극락왕생을 간절히 발원한다”면서 “부처님의 크신 가피력으로 인류의 평화와 민족의 대화합이 성취되기를 염원한다”

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원담 점등을 마친 후 천안함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하는 탑돌이를 진행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스님)는 지난 4월26일 경내 극락전 앞에 ‘천안함 순직 영령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는 1일 오전11시 대웅전에서 ‘천안함 순직 영령 합동위령제’를 봉행한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정호스님)는 지난 4월 27일 본·말사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이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 내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고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박인택 기자·이래훈 전북지사장



현장에서

온 국민이 해군 천안함 46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지켜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다.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마련된 분향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군종특별교구, 전국 주요사찰에 분향소가 설치돼 합동위령제를 준비하는 등 불교계도 희생장병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국민적 추모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천안함 인양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중순께 방문한 2함대는 침몰함 속에 부대 자체가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다. 영내에 자리잡은 군사철 해운사에는 희생자 유족들이 수시로 방문해 슬픔을 달래고 있었다. 주지 법사는 “자식을 잃은 부모

46용사 유족·생존자 세심한 배려를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예에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느냐”며 현장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전했다. 군에 대한 서운함, 언론에 대한 불신 등으로 희생자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었다.

천안함 생존 장병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동료들을 잃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현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었다. 생존 장병들에 대한 상담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해운사 주지 법사는 “(‘실종된’) 동료들이 너무 보고 싶다’는 생존 장병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 역시 가슴이 너무 아프다”며 안타까워했다.

천안함 46용사와 유족, 생존 장병, 부대 장병에 이르기까지 이번 사건으로 불교계가 앞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대 중들이 너무도 많다. 자식을 아버지를 남편을 친구를 잃은 이들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불교계가 적극 나서 이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길 바란다.

동화사 산중총회와 관련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1) 현 총무원의 집행부의 선거중립의무 위반과 불공정 행위 및 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문후보 선거사무실 (아미사)에 한 스님이 선문스님의 측근으로 위장 컴퓨터의 선거자료 파일을 탈취하려다 총무원에 발각되자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2) 산중총회 투개표 과정에서의 부정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확인도장이 없으면 당연히 무효표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표현장에서 협의를 통해서 임의 처리하였는 바, 이는 논란의 여지없이 무효표로 처리되어야 한다.
- 3) 관련종법을 악용 거주승 부풀리기에 광분하여 실거주 대중 외에, 무려 23명의 스님들을 단지 투표권을 목적으로 위장 전입, 승가의 권위를 실추시킨 일에 대해 종단차원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스님 30여명이 동화사가 있는 대구시 동구 공산동사무소로 집단 전입한 사실을 놓고 사전선거 운동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YTN뉴스 2008년 7월 11일 채정수기자 보도

공동위원장 : 현오 무공 지성

부 위원 장 : 원학 자광 선봉 중운 금담 지운 지근 법전 성호 세연 학명 성호 진기 법혜

집행위원장 : 재운

위 원 : 정혜 선공 해문 덕현 선운 원일 선훈 해봉 덕운 오정 선희 해룡 선견 원각 기정 지운 법일 혜천 선훈 법륜 상원 일진 법경 법전 선용 탄공 각정 선륜 무상 선각 무일 선진 정각 법해 범곡 해범 재극 수련 스님 등 (무순)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 산중총회 주지후보 선문 비상대책위원회